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씻어 정결케 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이 큰 은혜로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늘 넘치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 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갇히고, 죄 때문에 매 맞고, 죄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잘 입으면 뭣 합니까? 잘 입어도 불만입니다. 잘살아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잘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집에서나 들에서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옥스퍼드를 졸업했는데 그의 둘도 없는 친구가 프랭크 알렌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돈도 많고, 부모님도 잘 만났는데, 항상 불평불만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클린턴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 아버지에게서 낳은 동생을 늘 자전거에 태우고 클린턴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면서 슬픈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백가지 어려운 중에도 한 가지 감사를 찾아내어 기어이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백가지가 좋아도 기어이 나쁜 것 하나 찾아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데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 좀 부족할 지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평생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446장, 559, 563 (중 택1)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조상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귀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고 겸소하게 드러야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리로부터 어긋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2013

중추절 감사예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3)



 명성교회

예 배 순 서

중추절 감사 예배는 온 가족이 모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목 도 시 106: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인 도 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 송 588, 589, 590장 (중 택1) 다 갈 이

성 시 교 독 다 갈 이

인도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회 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도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회 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도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회 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 아 멘 -

신 앙 고 백 다 갈 이

기 도 가 족 중

사랑과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따스한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에 사랑하는 가족이 모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
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대대손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은혜로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
시고, 이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
암아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
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추절을 맞이하는 아침에 우리 가족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
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아 멘 -

성 경 봉 독 대상 29:13~14 인 도 자

13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
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말 씬 감사의 사람 인 도 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한 30만명 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극
히 적다고 합니다. 일반교회에 나가면 아주 불편하고, 본인들도 섭섭
한 일이 많고, 어렵고, 또 본인들만 예배를 장소를 만들기는 재정적
으로 참 어렵고, 그래서 전국의 장애인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한맹교회는 거의 다 교인들 구성이 시각장애인이신데, 당회원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장로님이 시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일 하시는
데 모두 얼마나 기쁘시게 믿음생활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에 선교
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잘 살아서, 여유가 있
어서, 건강해서, 특별한 사람만, 잘되는 사람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
닙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장애인도 감사하고, 집에서나
들에서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